

제 112 호

연중 제 2 주일

1975. 1. 19.

# 순정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심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498)

□ 교 서 □



## 연두 사목 교서 (年頭司牧敎書) ㉠

김 재 덕 주교

3. 금년 1975년을 「공의회 정신 실천의 해」로, 특히 공의회 문헌 중 「현대세계의 사목현장」의 정신을 연구 실천하는 해로 설정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 (1) 교구 전반의 공의회정신적 재교육 실시와
- (2) 교구사목 행정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 (1) 재교육 실시

교구전반에 걸쳐 공의회 정신적인 재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현대세계의 사목현장」을 주제로 하여 거기서 현대세계에 있어서의 「신앙의 자세 확립」의 원리를 발굴 또한 실천함에 주력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전체 교구민에게 일제히 이 문헌을 숙독 연구케 하고, 특히 성직자와 지식인을 중심으로 교육반을 구성하여 지역별 또는 단체별로 연수회, 묵상회, 순회강연회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저명인사를 초빙 특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의식계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교육실시의 연중 세부계획은 위촉된 준비위원회에서 마련되는대로 곧 시달하겠습니다)

### (2) 사목 행정 체제 강화

가) 교구청 각 부서의 업무한계를 뚜렷이 하여 운영의 원활을 기한다.

교구청 구조는 이미 전국 통일안대로 정비되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그 업무한계가 애매한 점이 많아 이를 뚜렷이 규정짓지 않고서는 상호 협력해야 할 사목국과 관리국 간에 업무집행에 있어 상호 상충으로 인한 교구 업무 행정상 차질을 가져올 우려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부규정이 마련되었다 해도 그때 그때 경우를 따라 사무처장이 이를 조정해야 할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나) 교구 산하 각 기관(본당 포함)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교구 산하 각기관(본당, 학교, 병원, 가톨릭 센터, 농장 등)들이 현재까지 거의 교구당국의 방치상태 중에서

운영되어가고 있음은 어느면 자율성을 기르는데 많은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대로 계속되는 것은 장래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무모한 일로서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하여 시급히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좀더 합리적인 운영방침에 기본재료를 모색해야 하겠습니까.

다) 관리국 산하에 재단업무 전담실을 설치한다.

상급 우리 교구는 재단법인 업무를 관리국 사무장이 겸무하고 있으므로 해서 교구의 막대한 기본재산 관리가 소홀히 되어 왔으며, 대(對) 관청 사무처리도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에 시급히 유능한 사무원을 채용하여 재단업무를 전담시켜야 하겠습니까

라) 사무처장 주관하에 교구 상황실을 설치한다.

교구청 실무자는 물론, 교구민이 언제든지 교구 전반 실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목계획을 수립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통계학적인 재료를 비치하는 상황실을 설치해야 하겠습니까.

마) 사목협의회와 평신도단체 협의회를 재조정한다.

현재 우리 교구는 사목협의회가 평신도단체 협의회와의 구실을 겸하면서 어느면 교구 사목행정의 일원화를 꾀하여 왔으나, 이제는 공의회 정신과 협의회 기구 전국 통일안의 원칙에 따라 재조정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현 사목협의회와 평신도단체 협의회가 1975년 9월말로 되어 있기에 도중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그동안 충분한 연구기간을 갖어 교구실정에 맞는 형태의 두가지 기구의 분리조직은 9월 전후에 가서 단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한 때 우리 교회는 그 사도직 활동에 있어 대개는 주교가 주역을, 성직자 수도자가 그 조역을, 그리고 평신도는 고작 관람객의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왕의 자세를 지양하고, 의당히 평신도가 사회 각분야에서 주역을, 성직자 수도자는 조역 내지 지휘의 역할을 (그리고 주교는 감독의 역할) 담당하는 방향으로 사도직 활동을 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봉사받기보다 봉사하려 왔노라”하신 그리스도의 정신과도 잘 부합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직자, 수도자들은 평신도들을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를 보듯 말고 그들에게 과감하게 사도직을 맡겨 활동하게 할 것이며, 평신도들은 모든 것을 성직자 수도자들에게만 의존하는 수동적 자세를 버리고,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사도직 활동을 영예롭게 수행해 주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 정의 □



### 우리의 결의

(전략)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주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진리가 공동체와 생활속에 자리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을 계속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소명을 믿는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이땅에서 확인될 때까지 우리의 소명을 다 할 것을 제시받고 있다. 인간회복의 교회사명을 실천코자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인간을 구하고 사회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겨레를 구하기 위하여 결연한 자세로 우리의 결의를 천명하는 바이다.

1. 1인의 독재를 위하여 3천만 국민에 대한 정보정치와 억압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집권층의 안보를 위하여 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 1인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인간의 양심이 더 이상 유린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온 국민의 자유와 안보와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인간 회복을 위하여 헌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

2. 1인의 의사에 의한 1인의 장기집권을 위한, 1인의 권력집중과 그 행사를 위한 현행헌법은 그 존재의 국민적 의미가 없다. 양심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법국민적 의사가 반영된 새로운 민주헌법으로의 제체를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3. 지학순 주교를 비롯한 애국적 민주인사의 석방을 우리는 요구한다. 민주애국 인사의 석방을 더 이상 지체한다면 그것은 철권의 폭압으로 현재의 난국을 수습하려는 당국의 단견과 무모를 노출하는 것 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다.

4. 언론탄압의 교활한 간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자유언론에의 탄압은 곧 양심과 진실을 두려워하는 헌정권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유언론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최최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국민의 성원이 그에 밀반침할 것을 확신한다.

5. 농민과 근로자의 생활은 인내의 극한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무모한 경제정책이 빛은 이와같은 파국은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우리는 이와같은 우리의 결의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계속할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일이며 인간의 양심을 회복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사명임을 믿는다. 우리는 암흑속의 횃불을 계속 높이 들 것이다.

1975년 1월 9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 은 땅이 당신 앞에 꿇어 엎드려 당신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나이다.

(2) 말씀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 49:3. 5-6)  
나는 너를 이교 백성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이 되게 하였다.

□증계송 ○보소서 이 몸은 당신 뜻을 따르기 위해 명령했나이다.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만 당신이 이 몸을 굽어보셨네. 당신은 내 입으로 새로운 노래를, 우리 하느님께 송가를 부르게 하시었네○

□제 2독서 (고린도 전서 1:1-3, 성서 p. 371)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주 예수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너희와 함께.

□말렐루야 알렐루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가 운데 계시도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요한 1:29-34, 성서 p. 203)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로다.

□신자들의 기도  
1. 교회 일치운동에 헌신하는 이들과 우리의 무기력함을 질책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한 제5차 세계교회 회의와 성년이 잘 준비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그리스도교 일치 사무국과 세계 교회 회의의 과업이 잘 추진되기 위하여, 한국 교회 일치위원회와 모든 일치운동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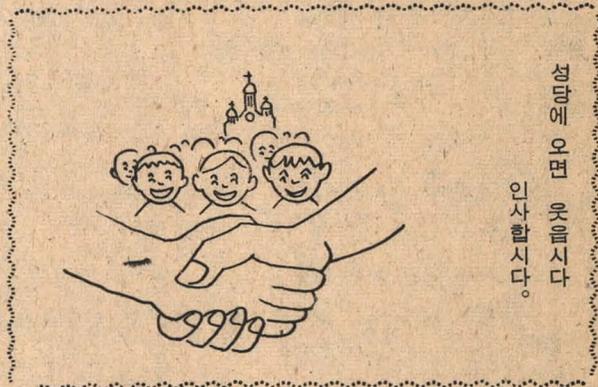
3. 인종적, 사회적, 정치적 차별에서 남녀 인간을 해방시키고 노력함에 있어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모든 기술상의 변천과 발전이 인류 전체에 봉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데 기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우리의 일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리스도여, 이토록 어려운 때 일수록 당신의 양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게 이끌어 주소서. 우리주 예수.....○아멘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고 또 믿나이다.

### \* 순정이 산책 \*



파이렉스·실크벽지  
집철·도장청부  
**대릉**  
지물 페인트상사  
전주 동부시장동(25986)

\* 교형여러분의  
**부활상회**  
교형들에게 염가판매 \*  
입학생...교복(에리트지) 및 모자  
남자어른...가죽갑자, 의류일체  
여자어른...천칠라코트,  
히말라야 코트  
● 전주시 전등, 매곡교사거리  
주원배(실베들)아림

◎ 교형 여러분의 집 ◎  
**현대 사진관**  
김낙준(요한)  
오거리 한전 옆  
전화 2 6289

□양지쪽□

□일치□



## 그리스도교 일치

일치기도 주간(1월 18~25일)

“하느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에페소 1:10)

1975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하시고 일치시키신다”는 주제하에 세계회의(WCC)가 열리는 해요,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회안에서 인간이 하느님 및 이웃사람들과 화해할 것을 추구하는 성년(聖年)의 정점을 이루는 해이기도 하다. 두 가지 모임이 다같이 교회들을 분리하고 있는 것들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에페소서에 시사된 대로, 만유(萬有)를 총괄하시는 하느님의 계획이 실현을 보게 하도록 하느님의 백성을 깨우쳐 주는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

따라서 일치(一致)를 비는 우리의 기도는 보다 넓은 안목에서 순종(順從)을 표하려는 노력이며, 인간들이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 에수를 통해서 하느님이 내리시는 부르심(召命)에 순종을 표하려는 노력이다.

□특별기고□

### 주님 몸 (교회)은 하나

은 명 기 목사

교회가 걸어 온 발걸음을 회고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승천과 성령의 강림으로 역사(歷史)에 태동한 후 지금까지의 과정을 몇개로 나눌 수 있다. 처음은 형성 발전기요, 그 다음은 분열기요, 오늘에 이르러서는 자체안에 전통과 특색의 차이점을 갖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세계 교회의 일치라는 본래의 신앙운동이 거부의 전진을 시작했다. 성서가 명시하는 바 대로 교회의 본체는 성령으로 인간을 불러 수욕(受肉)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서 모든 신도는 다함께 현존(現存)하신 그리스도의 지체(肢體)이며 성령의 전(殿)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현존(現存)하신 그리스도의 화체(化體)인 것이다.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밝히시고 사도 요한계서도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의 관계를 들어 그리스도와 교회 신자와의 유기적 생명체를 설명했다.

오늘날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일치의 거부를 내디디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 행동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세계사적 섭리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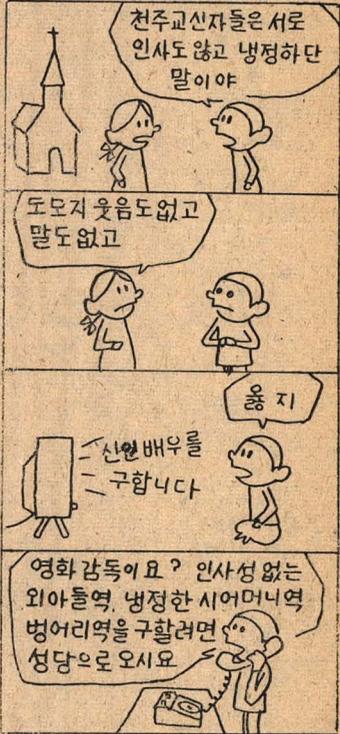
세계 교회의 일치운동은 인위적인 자기 주장과 전통 등을 내세우거나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하느님의 교회일치운동을 가로 막을 수는 없다. 이는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라는 본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느님의 단호하신 뜻과 행동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세계의 정신헌실은 무신론과 세속주의의 팽배하며 과학과 기술은 발전하는 반면에 인간은 쇠퇴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은 커져가지만 인간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정치는 권력의 황홀경에 도취할 뿐 인간을 학대하고, 교육은 시설을 갖추고 규모를 확대하면서 인격없는 인형 인간을 조립하는 데 열심하고 있다. 이 현실은 하느님을 절연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실정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인간을 회복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명을 깊이 반성할 때 세계사의 선두에서 거니지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함을 자책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성취하여야 할 세계사적인 사명을 수행하여야만 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산 몸으로 일치하고 단결해야 할 본래의 신앙과 신학이 요구된다. 이는 주님 몸인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 남문교회 목사〉

### 요심이 (78) 김병오



□시간안내□

- “하루 한순간을”  
홍윤숙지음 (1,200원)
- “마더 테레사”  
멜컴 마그렛츠 (400원)

### \*현대 광고사\*

(광고물 제작 실크인쇄)

\* 현대 DP 사  
(칼라 사진, 카메라 수리)

송 흥 섭

삼남극장과 전북신문사 베거리 중산  
전화 ② 9431

◎타자기 수리 전문◎

전주 뉴 타자 학원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도송동 605-1  
원장 신 송 무(바오로)  
전화 ②6664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일치주간: (1월. 18일-1월. 25일)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단일, 유일한 교회임을 자각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분열된 교회가 서로 일치하도록 기도를 드립시다.

2. 교리교사 연수회: 1975. 1. 20 (오후 1시)-1. 24(4박 5일)

3. 축 박 종상 부제님 서품식: 1975. 1. 25, 중앙에서

새로이 탄생하실 새 신부님을 위하여 교우분들의 뜨거운 기도 바랍니다.

4. 교회일치를 위한 기도회: 1975. 1. 20(월), 가톨릭 센터에서.

5. 제 7-8차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에 25개 분당에서 122명 학생 참가

중앙 5명, 전동 9, 복자 4, 덕진 9, 서학동 2, 노송 5, 둔율동 5, 월명동 4, 중동 5, 창인동 7, 바오로 12, 삼례 2, 진안 6, 무주 3, 장계 3, 남원 6, 순창 3, 정읍 1, 신터인 4, 김계 5, 대야 6, 함열 3, 황등 3, 화산 4, 금산 7명.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이 대 권  
보좌 신부 서 석 구  
사도 회장 김 영 진

1. 모든 교리반은 2월 2일부터 시작: 많은 예비자 참석 바람
2. 교무금 신청 바람
3. 신용 조합원 통장 제출 요망: 1월 말까지 통장을 제출하시면 출자 배당금을 기입하여 드리겠습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 기 순  
사도 회장 조 성 호

1. 교무금 미신입자 신입 바람
2. 신용 조합 월례회: 공식 미사후
3. 꼬미씨음 회합: 오후 1시 30분(전동에서)  
□지난주 성미 2말, 누계 348.5회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형

1. 신용 조합 정기 총회: 공식 미사후
  2.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일
  3.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중: 고등학생 5명 참석
  4. 중·고 학생 교리시간: 목, 금, 토 오후 3시  
지도강사: 강 막달레나 수녀님(많은 참석 바람)
- ☆ 축 철혼자 1975년 1월 21일 오전 11시  
총 계구(요셉)군, 이 운선(세시리아)양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 드립니다.  
<중노 1가> 이 막달레나: 1,500원, <신원공소>최종열: 2,000원  
주계: 3,500원, 누계 1,904,652원
- ※ 신축 성미 운동에 주부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74. 10. 27> 22말 2회 <74. 11월 12일> 8말 3회  
<1월> 3말 계 11말 3회, 누계 235말 5회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이 거 영

1. 호성동 갱생원 방문(14일): 의류 170여점, 사과 2상자, 빵 300개 가지고 20명의 일원이 방문
2. 중·고 학생 전원 집합: 오늘 오후 2시
3. 반장님들 회합: 공식 미사후
4. 신용 조합 미사회: 23일 오후 3시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 환 월  
보좌 신부 정 승 현  
사도 회장 이 현 재

1. 꼬미씨음: 오늘 오후 1시 30분
2. 신용조합 소식  
◎많은 조합원이 참석하셔서 제 7차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끝났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장: 한 수옥  
\*당선을 축하합니다\*  
이사장: 한수옥, 부이사장: 장준수  
이사: 이현재, 김대원, 법창규, 장금태, 이귀남, 이경순, 이길용. 감사: 이병식, 이동주

<신용조합 직원 모집 공고>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고졸이상 30세 미만 병역필자 및 중졸이상 20세 미만자.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종 환

1. 중·고 학생 특별교리: 20일 오후 2시부터
2. 교리교사 연수회에 많은분 참석 바랍니다.
3. 신용 조합 정기총회 일시: 1월 21일 오후 7시  
장소: 덕진분당 회의실 (부권 추첨이 있으니 부권을 가지고 오십시오)
4. 미사 안내  
<월, 화, 수, 목> 7시, <금> 오후 2시 <토> 오후 7시  
(특전미사) <일> 오전 10시, 오후 7시

금주의 술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윤 가밀로(영섭) 대건 신용조합 직원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부신태인음 창제안인음	신광 공소 아동 첫 영세식	3,190원	제 3 지구	창인동 황 등	지성인을위한 예비신자교리반신설	28,646원
		공소회장및 사도회 임원 총월례회 사도회 월례회 동계 중고생 교리 강좌 성모회 월례회	14,495원 2,520원			제 4 지구	중 앙 동 덕 진 자 복 학 동
제 2 지구	대 윤 동 월 명 중	분당 연혁지 작성 위원회 조직	2,620원	제 5 지구	남 원 주 장 진 준		
		성심유치원 원아 모집 전례 위원회 월례회 신용조합 감사	33,480원 22,360원 13,590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주 현 동